

# 서민경제 활성화 · 기업환경 기반구축

## 군산시 경제향만국, 새해 주요 업무계획 브리핑

군산시 경제향만국(국장 김형철)은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2018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고 올 한해 서민경제 활성화와 투자하고 싶은 기업환경의 기반구축을 위한 희망찬 첫 걸음을 내딛었다.

김형철 경제향만국장은 "지난 한 해 군산시는 지역경제의 핵심이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기동률의 급감으로 경제 위기를 겪었다"며 "그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서민경제 안정화 정책과 친 기업사회의 실천으로 많은 성과를 이뤄낸 한 해였다"고 밝혔다.

먼저, 군산시는 전북 유일의 컨벤션

센터인 새만금컨벤션센터의 운영으로 총 145건의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74,000여명의 방문객이 군산을 찾도록 했으며, 공설시장 청년몰 오픈, 전통시장 특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과 바이군산 시책의 추진을 통해 지역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했다.

또한 군산의 공격적인 투자유치 시책추진에 8개 기업으로부터 4,122억원의 투자금 확보로 이어져 343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었으며, 기업 방문 애로사항 청취, 산단 노후기반시설 및 환경 정비 등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군산시가 전북경제의 중심도시임을 상기시켜준 한 해가 되었다.

올해에도 시에서는 기반산업의 경쟁

력 확보를 통해 고용인정 및 친 기업 소상공인 정책강화를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신성장 동력 창출에 모든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자립 차량사주기 등의 바이군산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했다.

또한 군산의 공격적인 투자유치 시책추진에 8개 기업으로부터 4,122억원의 투자금 확보로 이어져 343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었으며, 기업 방문 애로사항 청취, 산단 노후기반시설 및 환경 정비 등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군산시가 전북경제의 중심도시임을 상기시켜준 한 해가 되었다.

올해에도 시에서는 기반산업의 경쟁

을 위한 조세지원체계, 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기업협력체계 등으로 전담부서를 구성하고 참여에 빠져있는 관내 기업들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군산항 준설 등 인프라 개선 ▲신규항로 확대로 국제무역항 기능 강화 ▲선유도 내부 관광로 개설 ▲신시, 무녀도 관광가만 시설 조성사업 추진 ▲말도~명도~방축도 인도로 설치 등을 통한 섬 관광 육성 ▲월명공원 유아체육 숲 조성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형철 경제향만국장은 "올 한해 군산시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잠재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30만 군산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저소득 가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익산시,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모집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저소득 가구의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집수리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익산시는 올해 5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과 152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추진한다.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총 140가구에 가구당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는 총 4가구에 최대 380만 원이 지원된다. 사업을 통해 집수리를 원하는 세대는 오는 1월 15일부터 2월 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노후주택의 지

방개량 화장실 개량, 보일러 수리, 도배, 장판, 창호, 전기 등 주거인정 및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경우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 경사로 설치 및 주택 개조 시 파손된 도배, 장판,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또는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 등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주택과 박재우 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주거여건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집수리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시는 2018년을 전통시장 도약의 해로 정하고 골목형 시장 육성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 “2018년은 전통시장 도약의 해로”

### 군산시, 공설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군산시가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2018년을 전통시장 도약의 해로 정하고 골목형 시장 육성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공설시장과 신영시장, 명산시장은 군산의 구도심 중앙에 위치하여 오래전부터 경제, 문화, 생활의 중심축을 이루며 서민 중심의 상권을 형성해왔다. 하지만 침체된 지역경제와 대형마트의 공세 속에 고전을 면치 못했으며, 이에 시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한 신영시장은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을 통해 고객센터 조성, 신형 건조장 설치, 환경 정비 등의 인프라 조성 및 인터넷 방송국 개국 및 이벤트 개최 등의 자생력 강화를 통해 10%의 매출 향상을 이뤄냈으며, 공설시장은 빈 점포를 서양의 근대 물랑루즈를 컨셉으로 한 청년몰 '물랑루즈201'로 조성하여 20여명 청년상인의 창업을 이끌어 냈고, 6개월 영업기간 동안 10만여명의 방문객들을 끌어 모으며 높은 인기를 모았다. 특히 물랑루즈201에 입점해 있는 '브라더 새우장'은 대형마트에

서 추월한 전통시장 스타상품에 출진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계열사에 입점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아 수도권 일대에서 '군산공설시장 브라더 새우장'이라는 다투임으로 시판행사에 돌입했다.

김형철 경제향만국장은 "2018년을 전통시장 도약의 해로 설정하고 신영시장의 문화관광형사업과 도시재생사업, 공설시장의 청년몰과 문화관광형사업, 명산시장 야시장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해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문화 관광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군산민의 볼거리와 흥취가치가 넘치는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시 해양동 수산물종합센터 해양수산 복합공간으로 재탄생

군산시 해양동 수산물종합센터가 해양수산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한다.

군산시는 노후화된 미관과 안정성 문제가 이어져온 수산물종합센터의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125억원을 투입해 해양수산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동에 소재한 군산수산물종합센터는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시설 안전성 및 미관저하로 방문객이 해마다 줄었고 점포 매출에 큰 타격을 주며 시설 개선과 현대화 추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기존 수산물종합센터를 철거하고 현 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5,530㎡(부지 9,340㎡) 규모로 판매, 가공, 유통, 냉동·냉장 시설, 문화공간이 포함된 복합공간을 새롭게 신축할 예정으로, 지난해 11월 실시계획 의뢰를 한 상태다.

또한 지역수산물 소비촉진 및 수산물 유통 판로개척을 통한 경쟁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서부권 최대 문화복합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고남철 해양수산과장은 "해양수산 복합공간의 조성은 근대역사 문화지구와 연계된 새로운 수산물유통 플랫폼을 형성하여 해양동의 옛 명성을 되찾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에서는 점포 순환배차, 활어 매장 부족 등의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상인회와의 지속적인 만남을 거쳐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 청암산 에코라운드 조성계획 순항

해마다 군산의 명품 생태관광지인 청암산을 찾는 탐방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청암산 에코라운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

청암산 생태관광지인 청암산은 2015년 전북 생태관광지로 선정되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72억원을 투입해 올해 3년간 과정을 진행하게 되며, 군산호수의 금빛 물결을 만끽할 수 있는 '원앙길'과 어린이 숲 체험시설인 '꼬마 숲 놀이마당'이 준공된 상태다.

또한 잔디 블록으로 포장된 친환경 주차장 조성도 수변 탐방객들의 볼거리 제공을 위한 생태연못 및 관찰 데크 설치, 대나무 숲 생태학습장 조성도 꼬마 숲 놀이마당 진입로 정비로 통해 숲과

수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힐링공간을 조성했다.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생태관광 수요를 반영하여 연도별 세부 계획을 마련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만들어갈 방침으로, 올해에는 꼬마 숲 놀이마당 인근에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할 수 있도록 습지를 복원하고 어린이 숲 체험길을 조성하여 자연 속에서 신나게 뛰어놀며 자연의 소중함을 더할 수 있는 어린이에게 특화된 최적의 숲체험·생태 체험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차성규 환경정책과장은 "청암산이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태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청암산 에코라운드 조성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시, 197세대 대상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도시가스 공급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도시가스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익산시는 올해 3억 9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조금으로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등 197세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용의 50%한도 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월 28일까지다. 이 후 도시가스 공급 회사인 전북에너지서비

스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익산시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중 대상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가스 공급설비 보조금 지원 확대 실시로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에너지 공급으로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은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조성에 더욱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1,044가구에 대해 도시가스 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익산=정양원 기자